



디즈니가 ‘어벤져스:엔드게임’과 ‘알라딘’의 1000만 흥행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배급사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18일 현재 박스오피스 1위인 ‘라이온 킹’과 300만 관객을 넘은 ‘토이스토리4’ 역시 디즈니 영 사진제공 |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감성과 첨단기술의 만남... “I ♥ 디즈니”

‘어벤져스:엔드게임’ ‘알라딘’ 1000만 17일 개봉 ‘라이온 킹’ 예매율 60%대 올해 흥행 톱10중 디즈니 영화만 4편 디지털 기술력+아날로그 감성 조화 마블·폭스 인수로 영웅 캐릭터 진화

‘디즈니 월드’가 열렸다. 할리우드 스튜디오 월트디즈니컴퍼니가 제작해 국내에 직접 배급한 영화가 연이어 흥행하고 있다. 17일 개봉한 ‘라이온 킹’도 첫날 33만 명(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으로 출발, 예매율 60%대로 주말 흥행 1위를 예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디즈니의 질주는 도드라졌다. ‘어벤져스:엔드게임’과 ‘알라딘’이 연이어 1000만 관객을 동원했고, 이에 힘입어 상반기 배급사 점유율 전체 1위(30.12%)까지 차지했다.

● ‘디지털’ 추구... 감성과 첨단 기술 조화 디즈니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저작권

을 보유한 방대한 콘텐츠를 다방면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동시에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기획에 주력한 점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2016년 ‘정글북’으로 본격 시작한 ‘라이브 액션’ 시리즈는 그 힘을 견고하게 다진 원동력이 됐다. 20~30년 전 극장 애니메이션을 첨단기술을 통한 실사영화로 만든 시리즈는 ‘미녀와 야수’를 거쳐 ‘알라딘’과 ‘라이온 킹’으로 정점에 올랐다. 모두 가족관객을 공략, 빠르게 스크어를 늘려왔다. 멀티플렉스 CJ CGV 황재현 팀장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부모와 자녀 세대가 공감하는 메시지를 담아 ‘함께 보는’ 가족영화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추억과 향수를 자극하는 감성에 첨단 기술을 더한 ‘디지털’(디지털, 아날로그의 합성어)을 지향하는 전략이 적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관객에게 스펙터클한 놀라움을 준다”며 “추억을 떠올리면서 현대기술이 접목된

시각효과까지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이라고 설명했다.

● ‘시대 흐름’ 반영... 진취적 여성·흑인 영웅

디즈니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도 기민하게 반영한다. 마블스튜디오의 첫 여성 히어로 ‘캡틴 마블’이 대표적이다. 할리우드를 시작으로 최근 여성 캐릭터의 역할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나오는 상황과 맞물려 제작된 영화는 3월 580만 관객을 동원했다.

‘알라딘’도 마찬가지다. 운명을 개척하는 공주 재스민의 매력이 1000만 흥행의 견인차가 됐다는 평가다. 디즈니가 배급한 픽사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4’ 역시 도자기 인형 보핌의 비중을 늘리면서 진취적인 여성상으로 그려 주목받았다.

다인종을 포용하는 전략도 성공을 이끈 원동력이다. 첫 흑인 히어로 영화인 ‘블랙팬서’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13억 달러(1조5234억 원)의 수익을 거두면서 ‘아이언맨’ 등을 제치고 마블 솔로무비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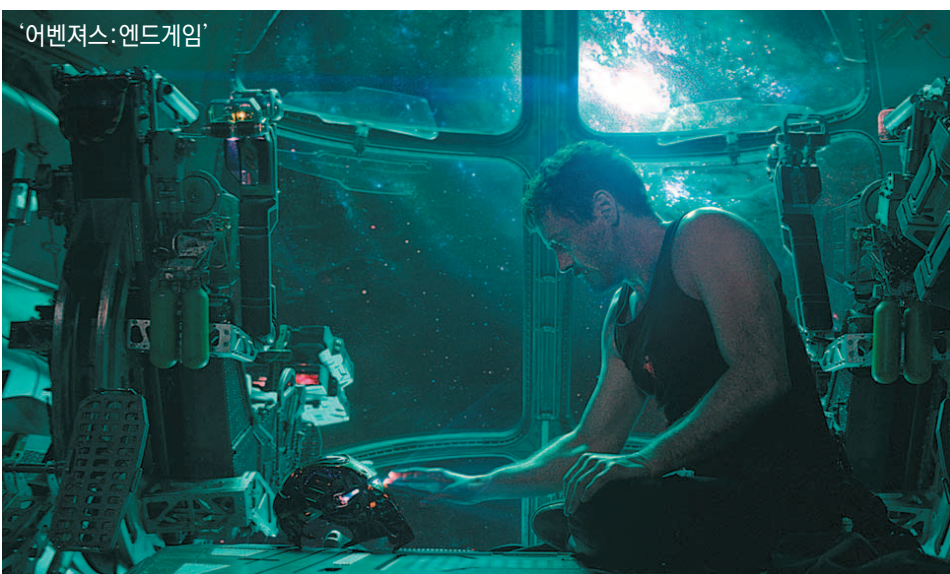
성적을 거뒀다. 이어 제작에 착수한 실사 영화 ‘인어공주’에 흑인가수이자 배우인 할리 베일리 캐스팅했고, 마블 히어로 시리즈를 통해 아시아 영웅과 성 소수자 캐릭터도 선보인다.

● ‘공격적 인수합병’... 마블·폭스·픽사까지

디즈니는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면서 전 세계 흥행 패권을 쥔 ‘콘텐츠 공룡’으로 거듭났다. 2009년 마블스튜디오를 인수해 아이언맨, 닥터 스트레인지 등 캐릭터를 확보했고, 지난해 폭스를 품으며 ‘아바타’ ‘엑스맨’ 등 메가 히트작도 보유하게 됐다. 애니메이션 명가 픽사 역시 지금은 디즈니 소유다.

활발한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불리지만 스튜디오별 개성은 존중한다. 윤성은 평론가는 “디즈니는 픽사나 마블 등을 ‘디즈니화’하지 않고 고유한 색깔을 유지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유재석·김태호 PD 뭉쳤다... ‘제2 무한도전’ 시동

MBC ‘놀면 뭐하니?’ 토요일 18시 편성

방송인 유재석이 ‘무한도전’의 영광을 재현할까.

유재석이 MBC 김태호 PD와 새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로 뭉쳤다. 작년 3월 종영한 ‘무한도전’과 같은 토요일 오후 6시대에 편성돼 시청자 기대감을 한 몸에 받는다.

27일 시작하는 ‘놀면 뭐하니?’는 유재석에 맡겨진 카메라가 다른 사람들의 손을 거쳐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담는다. 제작진은 지난달 12일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올리며 시청자와 직접 소통에 나섰다. 이에 18일 기준 26만2000여 명의 구독자를 모으며 화제에 올랐다.

유재석은 ‘놀면 뭐하니?’의 기획회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이끈다. 김태호 PD는 앞서 “유재석이 평소 자주 했던 ‘쉬는 날 놀면 뭐하니?’란 말이 프로그램의 출발선이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제작진은 ‘기획·연출·주연 유재석’이란 크레디트를 넣어 눈길을 모은다. 포스



유재석 김태호 PD

터도 방송인 조세호, 모델 아이린의 도움을 받아 그가 직접 만들었다.

‘놀면 뭐하니?’는 유튜브에서 모은 화제성을 발판 삼아 일찌감치 기대작으로 떠올랐다. 시청자 사이에서는 ‘무한도전’의 인기를 잇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 전망이 쏟아진다. MBC도 프로그램의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첫 방송을 한 주 앞둔 20일 유튜브 영상 요약본을 프롤로그로 편성해 예열에 나선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donga.com

‘양현석 성접대 의혹’ 공소시효 만료 전 입증할까

경찰, 정마담 등 관련자 진술 확보 총력

17일 경찰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받는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50)을 피의자로 입건한 가운데 관련 공소시효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아 향후 수사 과정에 시선이 쏠린다.

양현석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됐다. 해당 법률의 공소시효는 5년. 양현석은 2014년 7월에 이어 9월 서울 강남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접대하며 유혹업소 여성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앞으로 두 달 안에 양현석의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경찰은 5월27일 이번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양현석과 유혹업소 여성 등 관련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며 내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그동안 관련자들의 진술 자료 등을 분석해 양현석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혀 과정에 진전이 있음을 내비쳤다. 양현석과 YG엔터테인먼트 직원의 지출내역, 유혹업소 여성들과 이들을 동원한 것으로 지목된



양현석

일명 ‘정마담’ 등 일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그 토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양현석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며 공소시효 만료 전에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양현석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인의 초대로 자리에 참석했을 뿐 접대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접대 당시 유혹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일명 ‘정마담’과 관련해서도 “그가 왜 술자리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등 의혹을 부인해왔다.

백승미 기자 bsm@donga.com

‘윤창호법’이 바꾼 연예계 풍경

술 입에 대는 순간 대리운전 호출 후 택시 탑승까지 확인

연예인·엔터 직원들 음주운전 방지 교육



안재욱

“아예 술을 멀리 하는 게 좋겠다.”

한 배우 매니저먼트사 관계자의 말이다. 관계자는 18일 “요즘 소속 연예인은 물론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음주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병욱과 손승원 등 일부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물의를 빚으며 대중적 비난을 받는 상황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고 그는 강조했다.



오승윤

또 다른 매니저먼트사 관계자도 “이전에는

소주 1잔 정도는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여기는 분위기도 없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요즘엔 연예인들에 술을 입에 대는 순간 무조건 대리운전을 부르라”고 수없이 강조한다”고 귀띔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이 바꿔놓은 연예계의 한 풍경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게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종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미만으로 대폭 낮아졌다. 이는 통상적으로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다. 적은 음주량도 곧바로 적발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에 각 매니저먼트사들은 연예인과 직원들에게 관련 기준을 공유하며 음주운전 방지 교육에 한창이다. 방송사와 드라마 제작사도 마찬가지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종방연 등 희식자리가 끝난 후 매니저가 연예인을 차에 태우고 가는 걸 확인하거나 직접 택시에 태워 보낸다”며 “연예인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더라도 하면 프로그램에 미치는 피해도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예인의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 역시 이전보다 더욱 엄격해졌다. 최근 동승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된 연기자 오승윤은 시청자로부터 “음주운전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12일 MBC 예능프로그램 ‘호구의 연애’와 드라마 ‘멜로가 체질’에서 하차했다.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5개월 만인 13일 연극 ‘미저리’ 무대에 오른 연기자 안재욱도 “복귀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대중의 원성을 사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